

그 농장에서는 도대체 왜 ASF가 발생했을까?

작은 빈틈이
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.



그 농장에서는 도대체 왜 ASF가 발생했을까?

01

비상!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코앞까지 왔습니다.

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

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9개 시군에서 2,657건 발생했고 특히, 올해 발생 누적건수가 전년대비 18%*했습니다.

* '21.1~8월 664건 → '22.1~8월 782건(18%)

최근 충북·경북 등으로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, 백두대간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.

사육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은

2019년 14건(파주·연천·김포·강화), 2020년 2건(화천), 2021년 5건(영월·고성·인제·홍천) 2022년 2건(홍천·양구) 발생해 총 23건이 발생했습니다.



우리의 작은 방심으로 어딘가 빈틈을 보인다면 감염 규모는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.



가을철, 야생멧돼지 주의!

특히, 가을철은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활발해져 ASF 발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. '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'는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양돈농가들은 사람/차량/매개체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, **기본 방역수칙**을 지켜야 합니다.



02

농장 출입 시 위반 사례

1 '사람'에 의한 전파 위험



농장 출입구 밖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해 비가 오면 빗물이 소독수와 섞여서 소독효과가 떨어짐



농장 내부 공사(컴포스트, 울타리 옹벽)를 위해 출입하는 인부가 방역복을 입지 않고 방역실에서 전신 소독 없이 농장에 진입함

2 '차량'에 의한 전파 위험



농장 정문에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은 소독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함



고정식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지 않음



자주 사용하는 농장 후문에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

3 '장비'에 의한 전파 위험



사료를 돈사(임신사)에 옮길 때 사용하는 미니 전동카트를 세척·소독하지 않음



돈사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장비(손수레, 스키로더, 삽)를 세척·소독하지 않음

방역수칙, 꼭 기억해주세요!

- 1 농장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 - 사람, 차량 및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,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하여 농장 안으로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.
 - 후문(부출입구)은 폐쇄하거나 대인·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.
- 2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, 농장 출입자(농장 종사자 포함)는 방역복을 착용하고 방역실에서 전신 소독을 한 다음 진입해야 합니다.
- 3 농장 출입 차량(농장 소유차량 포함)은 반드시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
- 4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 전·후 세척·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.

03

농장 외부 → 내부, 위반 사례

1 외부 울타리 관리 미흡



농장 외부 울타리가 산비탈에 인접하고 높이가 낮아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침입할 가능성이 큼



- 돈사 근처까지 약 500m 구간의 진입로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생동물의 접근이 가능함
- 오염된 지역으로부터 차량 바퀴나 차량 하부에 묻은 흙 등으로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있음



농장 뒤에 밀폐된 울타리와 배수로가 없어 빗물 및 토사가 농장 안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야산의 오염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들어 올 우려가 있음



농장 외부 울타리 아래 틈새로 작은 야생동물이 농장 안으로 침입 가능

2 농장 내 빗물 유입



농장 주변,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중 호우에 의한 빗물이 농장 또는 돈사 안으로 들어옴 (*트랙터 주차장과 액비탱크, 자돈사 인근에 물이 고임)



농장 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해 퇴비사와 돈사를 이어주는 흙길에 빗물이 고여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음

3 퇴비사 방조망 관리 미흡



퇴비사 지붕의 비닐이 찢겨있어 그 틈새(구멍)로 들어온 야생조류(산비둘기 추정)가 관찰됨



퇴비사 차단망을 설치하지 않아 야생조수류의 접근으로 퇴비사가 오염될 수 있음

4 퇴비사, 톱밥 관리 미흡



톱밥과 건조된 분변을 밖에 그대로 쌓아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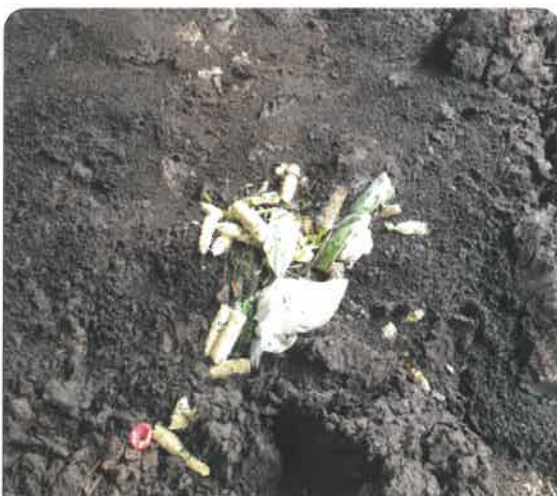


퇴비사와 톱밥 창고를 나란히 연결하고, 출입구 문을 닫지 않아 퇴비사 내부에서 야생조류(참새 등)가 관찰됨

5 야생동물 차단 관리 미흡



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를 제거하지 않아 야생조수류를 통해 오염될 수 있음



퇴비장에 남은 음식물을 폐기하여 야생조류를 유인할 수 있음

방역수칙, 꼭 기억해주세요!

- 1 야생동물이 농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바깥에 울타리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특히,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청소해서 텃새와 설치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.
- 2 야산 쪽 울타리는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형 울타리를 설치하고, 집중 호우 전 농장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농장 안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- 3 돼지와 접촉하는 톱밥, 분뇨 등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
- 4 퇴비사는 방충·방조망을 빈틈없이 설치하고, 퇴비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및 돈사-퇴비사간 이동경로를 매일 소독해야 합니다.
※ 톱밥 야적 장소, 퇴비사, 사료빈 주위에 야생동물(조류, 설치류 등)이 접근할 경우,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.

[참고]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방역 기본 수칙 체크리스트	
사람	외부인 출입금지, 대인소독시설·발판소독조 설치, 출입자 기록, 돈사 출입 시 손 씻기, 전실 설치, 돈사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
차량·물품	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, 경운기·트랙터 등 농장외부 장비 반입 금지, 돈사 반입 장비·물품 소독 철저, 농장 내 물품 소독 후 보관 등
매개체	생석회 벨트구축, 울타리·기피제 설치, 퇴비장 방조망 설치, 주기적 구충·구서, 사료빈 및 퇴비장 청소·소독, 돈사 방충망 설치 등

04 돈사 외부 → 내부, 위반 사례

1 모돈사·관리사 출입 관리 미흡



분만사-임신사를 출입하면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음



관리사 입구에 신발소독조가 마련되지 않아 관리사를 통해 돈사 안으로 오염원이 들어갈 수 있음

2 전실 관리 미흡



일부 돈사에 전실을 설치하지 않아 출입 전후에 전용 장화 갈아신기,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움



모돈사 전실에 별도의 구획공간이 없어 전용 장화 갈아신기와 방역복 갈아입기가 어려움
※ 장화 갈아신기용 발판 설치가 안 되어 있음

3 돈사 출입구 관리 미흡



돈사 뒷문이 폐쇄되지 않아 분만사/임신사를 자유롭게 드나들고, 전용장화, 손 소독기, 발판소독조 등이 갖춰지지 않음



돈사 입구에 전실이 설치되지 않고, 방역실을 통과 후 농장 마당을 거쳐 바로 돈사에 진입함

4 장비·매개체 관리 미흡



손수레·삽 등 분뇨처리 장비를 세척, 소독하지 않고 돈사 내에 방치해 둠



분만사/임신사 돈분처리 도구(손수레)를 사용 전·후에 소독·세척·건조하는 등 관리되지 않음



모돈사 안으로 빗물이 들어와 빗물을 통해 오염원(바이러스)이 들어올 가능성 있음



외국인근로자가 농장 안 텃밭에서 퇴비를 사용해 옥수수와 호박 등을 경작 함으로써 텃밭에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음

방역수칙, 꼭 기억해주세요!

- 1 돈사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고 소독장비를 비치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사용 장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.
- 2 빗물이 돈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.
- 3 농장 주변의 논/밭과 돈사를 오가면서 오염원을 돈사 안으로 묻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장 종사자는 영농활동을, 외국인근로자는 텃밭 경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4 분뇨처리 손수레는 돈사 별로 2대 이상 구비해서 세척·소독 후 교대로 사용해야 합니다.



꺼지지 않는 불씨, ASF
최고의 방역은
‘기본을 지키는 것’입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